

1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32.72 (-12.34)	695.59 (+13.80)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411 (-0.026)	1271.00 (-1.60)

최태원 상의 회장
“지역발전 4대전략으로
미래성장 거점 전환”
02



아이폰 폭등 우려?... 한발 또 물러선 트럼프

美 반도체·스마트폰 ‘관세 제외’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주말 사이 낭보가 전해졌다. 워싱턴이 석 달 후 매기게 될 관세(잠정 10% 이상) 품목에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이 예외 적용을 받을 것이라던 소식이다. 언론 보도대로 추진된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전자기기 물가의 큰 폭 상승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이 세계 각국에 부과를 추진하는 ‘상호관세’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제외됐다.

미국도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특정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 제외’ 지침을 공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모니터, 반도체 등이 2일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지침에는 또 반도체, 태양전지,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기타 전자 장치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제외 사항도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시장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물론 스마트폰의 4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對)베트남 상호 관세율은 46%에 달한다. 13일 오후 기준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 애플을 주요 고객사로 둔 대형 부품사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향후 상황이 또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 석탄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고 있다. /AP·뉴시스

자국 전자기기 물가상승 우려 반영
스마트폰·노트북 등 상호관세 제외
삼성전자·하이닉스·애플 등 슉통
韓, 국내 조선기술 협상카드로 검토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애플은 스마트폰 제품의 90%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와 같이 애플 등 기술집약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침이 제시됐다고 CNBC는 전했다. 애플은 세계 최대 기업이자 미국을 대표한다. 자국민들의 물가 상승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애플 아이폰은 중국시장에서 제작이 대외 관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 관세 수위를 공개할 당시, 반도체와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의 개별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으나 이 품목들 관세 방침에 대한 유지·수정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조선부문 협력을 지렛대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깝고 조선 실적이 우수한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업계는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에 조선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협상에서도 유용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 내 조선소 수는 80% 이상 줄었고,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올해 1~3월 누적 기준 세계 수주 점유율 27%를 차지했다. 중국이 49%로 1위에 자리했고 일본은 2%로 3위에 올라 있다. 중국 견제가 목적인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ooul.co.kr

‘동물실험 대신 오가노이드’ FDA, 신약개발규제 대전환

AI·장기모사체 활용해 독성 분석
비동물 시험자료에 인센티브 제공
오디세이 등 국내 관련기술 관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오가노이드(장기 모사체)로 대체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적은 비용으로 신약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기존 동물 실험 약물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약 개발 패러다임 전환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 10일 단클론 항체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모델, 오가노이드와 오가노칩 기술 등을 활용해, 빠르고 안전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면서 동물실험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FDA는 앞으로 AI를 통해 약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측하고, 독성 반응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간, 심장, 면역기관 등 인간 장기를 모사한 실험실 기반 모델을 활용, 동물 실험에서 포착되지 않는 인체 반응까지 평가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신약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DA는 기존 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정, 비동물 기반 시험 자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제출한 제약사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더 안전한 치료제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

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틴 A. 마카리 FDA 국장은 “이번 변화는 환자에게는 더 빠른 치료, 과학계에는 이전 보다 정밀한 시험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수천 마리의 동물이 매년 실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국내 오가노이드 관련 기업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내 첫 오가노이드 기반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현재 동물실험 없이 첨단 의약품과 신소재를 정확히 평가하는 평가 솔루션 ‘오디세이(ODISEI)’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공급 중이다.

▲오디세이-ONC(종양) ▲오디세이-GUT(장) ▲오디세이-SKIN(피부) 등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40여건의 수탁계약을 맺었다. 이번 FDA의 조치로 이러한 독성 평가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디세이는 인체와 유사한 장기를 사용해 종간 차이에 의한 간극을 좁히고, 윤리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다”며 “최근에 ADC와 항암 백신 등 새로운 모달리티 약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물 평가의 기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유효성 독성 평가 모델로 오가노이드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M-커버스토리

기술은 기본... ‘수익 모델’ 있어야 투자유치도 수월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

‘기술’보다 실질적 사업모델 주목
“숫자로 증명 못하는 기술 의미없어”

스타트업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매출과 시장성을 중시하며, 단순히 기술을 증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액셀러레이터 벤처포트의 정하운 이사는 “기술은 이제 기본이다.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들이 이에 따라 초기부터 수익 모델을 명확히 하여 피칭에 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동안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3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투자 금액은 1조2824억원

으로 4% 줄었다. 초기 투자(시드~시리즈A)도 181건으로 29% 급감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벤처캐피털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금리와 펀드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리스크가 낮은 중기 이상 레벨(데스밸리 7년 이상)이 나 이미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

한 선호가 높아졌다.

지난해 AI 산업에 집중됐던 투자도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기술력만으로는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 모델을 보유한 인프라 기업에는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단순 AI 활용 기업들은 외면받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사업성과와 시장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투자받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 한파를 돌파하기 위해 정책 자금과 직접 투자 확대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원 규모의 초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팁스(TIPS), 정책융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역시 기술보다는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업기업들은 여전히 자체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매출 기반을 갖추거나 빠른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한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메트로 한줄뉴스



▲“청년들만 남아 달라”...尹 ‘과잠 대학생 포용’ 연출 논란
▲안철수, 유승민 국힘 경선 불참에 “전적 공감” 힘 모아달라”
/사진 뉴시스

▲김동연, ‘당원·여조 50 대 50’ 경선룰에 “들리려 경선 유감”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공동선대위 제안” 연합 정부 구성도 협의”

▲이재명, 출마 후 첫 일정 푸리오사시방문... “성장경제 행보”
▲‘대선출마 선언’ 나경원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 이화장 방문